

선교 편지 (2022년 1월)

-고동욱 교사라 선교사(일본)-

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202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되면 미국에서 누리던 풍족한 삶은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한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삶의 여러방면에서 미국에서 보다는 더욱 넉넉함으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대만에 가기전 한달 일정으로 머물 예정으로 입국했는데 올해 2월이면 일본에 온지 2년이 됩니다. 네팔에 갈 계획이라 간소하게 일본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집이라고 부를수 있는 집도 있고, 장거리를 다닐수 있는 자동차도, 심지어 피아노까지 준비해주신 하나님은 정말 좋은 신 하늘 아버지 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작년 한해에도 저희 부부를 기억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많은 동역자들과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부르신 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마지막 3개월 소식을 전합니다.

노아 인터네셔널 학교

한해 마지막 3개월은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야다학교와 노아학교는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간의 문화교류를 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노아학교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지만 그 후에는 코로나로 인해 줌(ZOOM)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나라의 음식과 전통놀이 그리고 학교생활에 대해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노아학교 아이들은 한국어로 찬양과 말씀암송 발표도 했습니다. 사라선교사가 궁중떡볶이를 만들어서 전교생이 같이 먹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다역앞에서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하는 행사를 시에서 주관하는데 노아학교에서 매년 초대를 받아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를 합니다. 올해도 오랫동안 준비해서 역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학교옆에 조그마한밭이 있는데 학교 아이들이 야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 한명이 배추를 6포기를 수확을 했는데 김치를 만들 팔아서 학교기금모음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라선교사와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김치를 만들어 팔아서 적지만 그래도 의미있는 모금을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학교들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서 재정후원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삿포로 기도회

오사카 40일 기도와 찬양모임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스텝들은 일본을 위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최북단인 삿포로를 시작으로 다른 도시들에서 24시간 기도모임을 하자는 마음이 모여서 12월 26, 27일 24시간 동안 기도와 찬양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예배자들이 각자 맡은 90분의 시간을 온전히 기도와 찬양으로 일본을 품고

예배드릴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버닝하트팀도 오사카 모임에 이어서 이번에도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와 찬양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일본의 부흥의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도시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기대합니다.

YWAM 요코하마

이번 시즌은 YWAM 요코하마 베이스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YWAM 도쿄베이스에 스텝으로 저희 부부와 휴고 선교사가 2020년 11월에 허입 되었고, 하나님은 저희들로 하여금 요코하마에 YWAM 베이스를 만들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도쿄 베이스 스텝들과는 교재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11월에 도쿄베이스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요코하마 베이스로 파송받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많은 위로와 도전과 축복을 받게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캐나다에서 온 조단(Jordan)이라는 청년을 요코하마 베이스에 스텝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한해 마지막 두달을 매주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요코하마 베이스를 통해 앞으로 5-10 년동안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들을 구하며 찾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베이스 팀원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같이 꿈꾸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신 비전들이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기타 소식

. 크리스마스 일주일전 이틀동안 시의 후원을 받아서 역 앞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6개의 주위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보기 드문 일인데, 이번에 교단도 서로 다른 교회들이 연합을 하는 뜻깊은 일이였습니다. 역근처 교회들을 소개하는 전단지도 나누어 주고, 무대를 설치하여 찬양 등 공연도 하고, 물건과 음식 등을 판매, 아이들 게임 등을 했습니다. 사라선교사는 중고물품판매와 악세사리 만들기 부스를 도왔고 앤드류 선교사는 아이들 게임부스를 도왔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지역교회가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그리고 더 많은 일본 교회들의 연합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 저희 부부는 혼고다이 그리스도 교회 소그룹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11 월과 12 월에는 몇몇 소그룹이 모여서 믿지않는 지인들도 초대해서 운동회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모임에서 저희부부가 메시지를 나눌수 있었고 평소에 이야기 하지 못했던 사람들과도 가까워지는 좋은 교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믿지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교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을거라 믿습니다.

. 24 시간 샤프로 기도와 찬양모이 이후 저희 부부는 샤프로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오타루라는 근처 도시에서 기도의 집을 운영하고 계신 선교사님부부를 방문하고, 니세코시에있는 YWAM 베이스를 방문해 교재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교재를 통해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서로를 위로하고

도전하는 뜻깊을 시간이였습니다. 휴가를 통해 한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위해 준비하는 휴식의 시간이였습니다.

기도제목

- YWAM 요코하마에 더 많은 스텝들이 동참할수 있게
- YWAM 요코하마 사역과 노아학교 사역을 잘 발란스를 맞출수 있도록
- 24 시간 기도와 찬양모임이 계속해서 다른 도시에서 할수 있도록
- 소그룹, 일대일등 저희부부와 교재와 인연을 맺는 많은 현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도록

